



합천 황강 인문의 사당 '함벽루' 3면에서 계속

뉴스 다시보기

자치단체 간 물 분쟁에 관해서

문정댐 건설하고 낙동강 이대로 버리나...정책 현실성 논란
(2016.12.01. KNN)



경상북도 청도군 문정댐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 물위기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50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는 미래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물 관련 분쟁과 위기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 간의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1991년 3월 폐놀유출 사고 이후 다른 하천에 비해 유역 내 지자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1994년 진주시 남강댐 물 50만㎥와 합천군 합천댐 물 50만㎥를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시작된 경남도와 부산시와의 갈등,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에 빚어진 취수장 낙동강 상류지역 이전 관련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울산시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연관된 문정댐 물 공급문제도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속제로 남아있는 등 댐 공급물량과 취수장 건설로 인한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낙동강 중류 근처 옛 위천공단 자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부산·경남·울산과 겪었던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물 공급과 수자원의 오염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물 관련 분쟁은 수자원이 국가의 재산이나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게 소유권이 있느냐의 근본적인 논쟁에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 사업이나 현실적인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수자원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개발자 또는 오염원인자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지역에 혜택을 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제도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면안내 > 1면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 뉴스 다시보기 / 2면 기고 & 현장인터뷰
3면 문화 & 연구동향 / 4면 소식 & 독자소리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안전한 수돗물 위한 막 여과 정수처리



거제 연초정수장의 막 여과 시설 (출처: Roplant.org)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문제는 낙동강 물을 처리해서 만든 수돗물을 공급받는 부산 시민들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정수장 시설을 최신 기술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중 막 여과 정수처리 기술을 들여보자. 이는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최신 기술 중 하나로 2009년 공주정수장을 필두로 국내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2012년 거제 연초정수장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0.1μm 이하의 작은 크기의 공극을 가진 막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보다 큰 오염물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수처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할 물질의 크기가 수 μm인 병원성 미생물임을 감안하면 꿈의 정수처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도입하면 응집제와 소독제 등 약품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약품 부산물의 위험도 줄게 된다.

하지만 막 여과 기술을 정수장에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용존성 물질 제거가 필요한 정수장에서는 반드시 용존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 기술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실제로 거제 연초정수장에서는 막 여과 기술과 함께 오존, 활성탄 등과 같은 고도처리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둘째, 막 자체의 오염 문제다. 막에 의해 걸러진 오염물질은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막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처리와 생산수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막 여과 기술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생산수량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설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김수한
부경대학교 교수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 네트워크

낙동강수계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정기포럼 개최



네트워크에서 2016년도를 결산하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기포럼에서는 낙동강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성과 발표 및 정기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효율적인 사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향후 낙동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및 연구를 제안하는 등 낙동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많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활기찬 소통이 이루어졌다. 낙동강을 더욱 안전하게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녹조현상 제어를 위한 대안



김미경
(주)에코파이코텍 대표이사

필자는 낙동강의 보가 설치되기 이전인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낙동강권역의 수계에 속하는 낙동강-밀양강-동창천-운문천에 이르는 제3지류가 유입되는 운문댐의 녹조현상(일명 수화현상, water bloom)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운문댐의 조류발생 원인과 예방대책」(2005, 김미경)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10월의 운문댐 수화현상의 규명은 갈수기의 강우량 감소로 인한 오염원의 농축과 정체로 인한 긴 체류시간, 수온저하에 따른 용승현상으로 인한 오염원의 섞임 현상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었고, 운문댐의 조류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은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인 10월에도 Aulacoseira sp.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 수체의 체류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낙동강 보의 준공 이후, 강의 수문학적 여건과 수환경의 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의 수문을 여는 대응요법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댐의 조류 발생 과정과 유형은 수문학적 요인인 체류시간, 유출저수량, 유입량 및 방류량 등과 이화학적 요인인 수온, 밀도, 빛, 영양염류 농도와 성층형성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류를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근본 치유책과 정책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보의 녹조가 긴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희석이 되어 일시적으로 녹조현상이 둔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녹조의 원인인 유해 미세조류(Microcystis aeruginosa)의 방류에 따른 수체의 이동으로 녹조현상의 원인종인 Microcystis가 지천까지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제2차 생태계교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낙동강 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줄이는 지천의 유역관리 개선이 필수적이고, 시간이 갈더라도 지속가능한 생태계 되살리기를 위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천생태계 살리기' 정책에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수필가 허봉조



배종혁
낙동강경남네트웍 대표

수문을 열어 녹조발생 막아야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 범벅이 된다. 특히 낙동강의 녹조는 사멸할 경우 독성이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생시키는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어민들은 해가 갈수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치어 방류를 하고 있으나 '물고기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녹조 전문가를 초청하여 낙동강의 마이크로시스틴 추적현황과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전봉석 박사(일본 신수대학)는 2015년 낙동강에서 물고기를 채취하여 마이크로시스틴 독소를 분석한 결과 강준치 내장, 송어 내장, 농어 간에서 MC-LR 1.02μg/g, 5.10μg/g, 1.68μg/g이 각각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어류의 독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마이크로시스틴 섭취 한계치(0.04μg/g)보다 훨씬 높은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다케하시토오루 교수(구마모토보건과학대학)는 강의 녹조는 바닷물과 밀도차로 인해 섞이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하구의 갯벌에 퇴적될 경우 1차 소비자인 조개류 등이 먹고, 2차 소비자인 어류에도 축적되며,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외국의 전문가도 낙동강 녹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와 끌어서 먹으면 조류독소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1천300만 영남주민들의 식 수원인 낙동강이 녹조 범벅이라는데 불안하지 않을 시민이 있겠는가? 낙동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독소에 오염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 운운하며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를 아예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의 녹조는 독소다. 국토의 4분의 1을 흐르며 논과 밭의 못 생명들에게 매마른 목을 적서주고 남해안으로 흘러간다. 이런 생명의 강을 죽음의 독소에 오염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기나 돌리는 어리석은 행정을 반복해서도 안된다. 올여름에는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녹조가 흐르는 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두자.

물과 생활 이야기

물의 덕목(德目)



산자분수령(山自分水領)이라 는 말이 있습니다. 산의 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도록 만든 지리서 산경표(山經表)의 화두로,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고 하는 자연이 인간

세상에 바라는 나눔과 거둬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물의 7가지 덕목을 적어보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릇을 닦지 않습니다. 약한 듯 강하고, 강한 듯 부드러운 것 또한 물입니다. 시샘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찾아 흐르고 또 흐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덕목이 아닙니까. 상대방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착각입니다. 서로 믿고 소통하며,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 앞에 놓인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수필가 허봉조

현장인터뷰

국내 최초 안전·보건 인증 취득, 천상정수사업소



울산의 상수도 1일 55만톤 중 28만 톤의 수도물을 생산·공급하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엄점용 주무관을 만나 주요현황 및 특징을 들어보았다.

☎ 2015년 4월 7일 전국 지자체 상수도분야 최초로 천 상 정 수 장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OHSAS 18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사업장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다.

☎ 2016년 7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완료로 울산 전역에 100% 고도정수처리 수도물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1일 28만 톤의 안전한 수도물을 중구와 북구 전 지역과 울주군 서북부 지역에 공급하게 되었다.

☎ 수도물의 품질, 환경, 안전보건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최첨단 고도화 시설의 완공으로 국제적 정수생산 체계를 갖춘 전국 최고의 정수장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천상정수사업소의 꾸준한 노력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한 수도물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제10편> 황강

황강은 유로연장 107km로 경남 합천군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이며, 낙동강의 구원의 물길이다. 산업화 이후 각종 오염의 시달림에 지쳐있는 낙동강에게 풍부한 수량과 수질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기에 더욱 더 소중한 곳이다.



사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단단하게 조각된 것 같은 풀밭을 갈라 야무지게 흐르는 물길이 107km 황강의 첫 물길이다. 삼도봉(조점산)은 백두대간의 신호등과 같은 산으로 백두대간에서는 삼봉산으로 길을 내주고 정상에서 가야산 쪽으로 뺏은 능선에서 '수도지맥'의 방향탐을 세운다. 그리고 가슴께의 지점에서 황강의 대하를 시작하게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황강과 거창위천이 한 몸 같겠으나, 엄연히 다른 곳이다. 한 곳은 남덕유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거창읍내에서 만나는 '거창 위천'이고, 또 한 곳은 거창군 고제면 탑산마을 뒷산에서 발원하여 거창 읍내 공설



읍내 공설운동장 옆에서 위천 물줄기를 만나는 황강 상류의 물길이다. 탑산마을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1차 농경을 하고, 황강물길의 수변구역에서는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이 탑산마을에서 약 30분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백두대간 대덕농원'이 있는데 구릉지 전체가 그들의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신기천'이 황강과 첫 번째로 조우한다. 발원지에서 탄생한 황강의 물이 다른 곳에서 찾아든 물과 한 몸이 되는 합수의 시간이다. 영롱한 눈빛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발원수는 첫 번째 만나는 신기천을 포함해 34곳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낙동강과 한 몸이 되기 전까지 황강에서 숙성된다.

황강의 발원수가 만나는 34명의 친구는 신기천, 계수천, 동병천, 양평천, 거창동천, 거창위천, 양향천, 정장천, 대산천, 전척천, 임불천, 가천천, 지곡천, 김봉천, 논덕천, 사천천, 유전천, 하금천, 회양천, 합천금성천, 용지천, 합천천, 황계천, 오곡천, 방천천, 아천, 월평천, 울곡천, 본천천, 낙민천, 사양천, 성상천, 성태천, 하회천 등 인데 용케도 같은 이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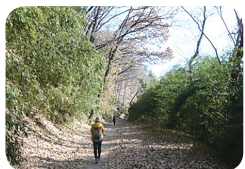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여행스케치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황강소리길에서 낙엽 밟는 소리를



황강은 합천의 역사와 주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젖줄이다. 100여 리에 이르는 바다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과 황강 주변으로 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군민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매우 적합한 장소다.

특히 합천 8경 중 제5경인 함벽루(합천읍 죽죽길 80)는 대야성 기슭에 위치하여 황강 정양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져 오래 전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풍류를 즐긴 장소로 누각 처마의 물이 황강에 떨어지는 배치로 더욱 유명하다.

여름철에는 야영과 래프팅, 카누, 카약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함벽루에서 내려와 황강소리길을 말없이 걸으며 양탄자처럼 폭신하게 쌓인 낙엽을 밟아보는 것도 좋겠다.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힐링의 소리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다.

▶ 먹거리



8품(品) 8미(味), 합천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합천 향토한우, 토종돼지, 합천쌀, 파프리카, 아이스딸기, 양파, 합천우리밀, 합천도자기 등 8가지 품종과 산채정식, 합천한과, 송기떡, 민물 매운탕, 토종돼지국밥, 밤묵, 매기짬, 합천막걸리 등 8가지 맛이 기다리고 있다. 골라서 맛보고 골라서 느끼는 재미를 누리보자.

연구동향

● '낙동강수계 유해조류 분포 및 생태적 발생특성' 연구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와 영남대학교 (수환경연구실)는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철곡보와 달성보를 중심으로 조류종식 양상을 파악하고 녹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대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낙동강수계 유해조류 분포 및 생태적 발생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녹조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4년에는 월별 모니터링을 통한 계절별 조류발생현황 및 우점종 파악, 2015년에는 녹조현상 집중발생 시기의 주간별 모니터링, 2016년에는 강우를 전후한 조류증감 파악 및 오염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곡보와 달성보에서 총 6종의 유해조류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철곡보와 달성보에서의 조류의 대량증식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고, 지역개발사업이 보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향후 수계 주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대두되는 녹조 관련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ow

「환경일자리에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무환도전 토크콘서트」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부산·울산·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한 '환경일자리에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무환(務環)도전 토크콘서트'가 지난 11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는 환경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학생들에게 환경 분야 일자리의 비전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환경부 김동진 국장의 '환경정책과 환경일자리 및 진로', 한국환경공단

차동현 팀장과 환경부 변상운 사무관·LG전자 하제일 사원이 진행한 '취업선배와의 대화', 정원보 황제평권취업 아카데미 대표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으로 진행이 됐다. 2015년부터 개최해온 이 행사는 공직 및 기업, 일반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이 취업준비와 방법 등 노하우를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달하는 생생한 체험의 현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제6기 캠퍼스 에코리더」 평가 워크숍 실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대학 내 친환경생활 확산운동을 전개한 「제6기 캠퍼스 에코리더」의 활동결과를 평가하는 최종 평가 워크숍이 2016년 12월 23일 계명대학교에서 실시됐다.

그린캠퍼스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캠퍼스 에코리더'는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촉하여

대학 내 친환경운동은 물론 SNS 홍보 마케팅,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환경신문 제작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6기 캠퍼스 에코리더의 다양한 활동은 2017년도에 위촉될 제7기 캠퍼스 에코리더의 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경남과기대 환경측정검사센터,
먹는물·수질분석 능력 국제공인검증 인증

먹는물수질검사, 수질, 대기 등 환경 관련 측정·분석 업무를 2001년부터 수행해 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측정검사센터(센터장 환경공학과 이춘식 교수)는 지난 11월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검증기관 'Sigma-Aldrich RTC Inc.'가 실시하는 국제 분석능력검증시험에 응시하여 먹는물 15항목(수은 외 14항목)과 수질 4항목(BOD와 3항목)에 대해 국제공인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2016년 12월 5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 PT)이란 국제적 수준에 맞는 분석 능력과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경남과기대 환경측정검사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민간 검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그 분석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기타 학술 연구 사업 수행 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Festival



▶ 청도 프로방스 크리스마스 산타마를 빛축제 ('16.11.4~'17.2.28, 경북 청도군 청도프로방스포토랜드 일대) ▶ 울산대공원 장미원 빛축제 ('16.12.8~'17.2.26,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94, 울산대공원 장미원 일대) ▶ 부곡하와이 얼음조각축제 ('16.12.24~'17.1.30,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하와이 일대) ▶ 거창금원산얼음축제 2017 ('16.12.29~'17.1.22, 경남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자연휴양림 일대) ▶ 해운대리교 빛축제 2016 ('16.12.2~'17.2.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29 일대) ▶ 알루미아 빛축제 ('16.11.1~'17.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 랫츠런 파크 부산경남 알루미아 일대)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5-213-2768 | Fax 055-264-6889 | sym@gngec.or.kr

News Room

겨울방학 생태탐방 에코투어 개최

부산관광공사에서는 겨울을 서부산권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겨울방학 낙동강 생태탐방 에코투어'를 운영한다.

투어 코스는 부산역을 시작으로 감천문화마을과 을숙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화명수목원, 낙동강 생태탐방선 체험 등이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일요일까지 하루 한차례 유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차 환경인재 양성교육 실시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17년 1월 18일(수)부터 1월 20일(금)까지 「제6차 환경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 실시한 이 교육은 취업을 준비 중인 환경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배취업자와의 만남, 취업전문 컨설팅, 모의면접 등 다양한 전문가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본 교육은 전공 분야와 취업지식을 교육 후에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형 교육이다. 또한 환경전공자와 기업체와의 인력매칭을 통한 환경일자리 창출을 실시하기 위해 환경전문인력Bank를 운영하고, 신청에 따라 행정 및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도 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강사단 교육 활성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분야(기후·생태·에너지 등)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법 발굴 및 활용으로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동 교육을 받은 강사는 대구센터 소속 환경강사풀(pool)로 등록되어 2017년 1월부터 대구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유치원 등),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센터는 매년 정기적인 환경강사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대구지역 환경강사 인력Bank' 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